

정치참여의식이 시민의 정치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성춘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The Influenc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wareness upon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Action

Lee, Sung Choon
Dept. of Military Science, Yong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올바른 정치문화 정착과 형성을 위해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정치참여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실증분석을 시도하였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인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정치신뢰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선거 의식 수준과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만족도와 정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다. 둘째, 가설 2인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사회소속감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는 선거 의식 수준과 사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소속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설 3인 정치신뢰가 정치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정치 만족도와 정치평가가 높을수록 적극적 정치 참여와 소극적 정치 참여의 참여행동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설 4인 사회소속감이 정치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시민의 사회소속감이 높을수록 적극적 정치 참여와 소극적 정치 참여의 정치참여 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시민들의 선거인식과 정치가에 대한 인식 등 정치의식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신뢰도와 정치참여행동 역시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structural (influence) of citizens' political awarenes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n the settlement of political cultu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tizens' political awareness and political reliability in Hypothesis 1 showed that the higher their election sense and self-efficacy, the higher their satisfaction with and evaluation of politics. Secondly,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tizens' political awareness and social sense of belonging in Hypothesis 2 showed that the higher the election sense and recognition in society, the higher the social sense of belonging. Thirdly,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political reliability 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Hypothesis (3) showed that the higher the political satisfaction and political assessment, the higher the positive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negative participation in politics. Fourth, in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social sense of belonging 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Hypothesis 4,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citizens' social belonging awareness, the higher the positiv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negative political participation.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political awareness of the citizens, such as their election sense and knowledge about their politicians, the more positive were their political reliabil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Keywords : Political Awareness,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Reliability, Social Sense of Belonging

1. 서론

민주주의에서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

엄한 평가가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책임정치가 구현될 수 있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전망적 평가를 고려하여 투표를

*Corresponding Author : Lee, Sung Choon(Yongin University)

Tel: +82-10-5078-1959 email: mire2050@naver.com

Received November 24, 2016

Revised (1st December 19, 2016, 2nd December 29, 2016, 3rd January 5, 2017)

Accepted January 6, 2017

Published January 31, 2017

하게 된다[1].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없다면 특정집단에 의하여 당선자가 왜곡될 수 있고, 당선자의 국민 대표성 문제로 인하여 국론분열과 업무수행이 어렵게 될 수 있다[2][3][4]. 따라서 민주화는 제도적 개혁을 필요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의식과 능력을 지닌 정치체 구성원들의 민주시민성을 필요로 한다[2]. 그러므로 민주적 정치의식과 문화는 한국정치 민주화를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의식은 정치문화에 대한 수용과 반응의 과정 즉, 정치사회화 과정에 의해서 형성되는 산물이다[5]. 정치의식이 정치적 행위를 어느 정도 예견해 줄 수 있다고 할 때 정치적 태도 및 정치적 견해, 정치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될 것이다[6]. 그러므로 한국정치 민주화는 시민이 어떠한 정치의식을 지니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에 따른 정치체제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정치민주화와 정치문화 정착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거에 대한 시민의 정치에 대한 의식이 정치참여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치의식과 정치참여행동의 관계에서 정치신뢰와 사회소속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파악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정치참여의식

선거참여에 대한 정치참여는 국민적 함의를 바탕으로 한 대의제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투표란, 선거에서 선거인이 누구를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표시를 말한다[7].

결국 선거는 정치발전의 토대이며, 이에 참여하는 선거의식은 선거에 관계된 정치적 태도, 의식, 신념 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8]. 이는 개인의 정치관심도나 성향, 정치적 정보원, 정치나 정치인에 대한 평가 및 견해, 정부나 정부정책에 대한 견해, 투표 참여 및 투표 결정요인 및 시기, 선거매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지도, 선거 공명성 평가, 특정후보에 대한 인지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선거의식으로 본다[9].

2.2 시민의 정치참여행동

정치참여란 대체적으로 의사결정, 혹은 정책과정에서 시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 할 수 있다.

Cunningham(1972)은 시민들의 정치참여행동을 지역 사회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의도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 하였고[10], Alford(1969)는 참여란 정책결정과정의 영향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하였다[11]. Huntington(1976)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주민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12]. 따라서 시민들의 정치참여행동이란 정부의 공공적 정책과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일반주민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3 정치의식과 정치신뢰 및 정치참여행동

과거에 비해 오늘날 유권자가 선거에 갖는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13].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선거문화에서 시민의 참여가 어떤 의식적 조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신뢰는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분석적 조건이다.

서용석(2002)은 시민의 정치의식은 정책결정의 주체적 참여자로서 시민에게 강조되어 온 여러 가지 생활태도나 양식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는 심들의 정치참여로 나타난다고 하였다[14]. 정한울·이근수(2013)는 정치신뢰가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고[15], Gronlund and Stala(2007) 역시 유럽의 22개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국가의 의회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해당 국가 선거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16]. 시민들의 정치인식은 정치적 신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정치적 신뢰감은 정부나 정치 담당자에 대한 하나의 평가적 자세로서 믿음과 관련된 감정을 말한다[17].

한편, Almond(1956)는 시민들의 인지적 감정과 평가 속에 내재된 정치체제인 신념과 의식이 정치행동으로 표출된다고 보았다[18]. 즉, 사회적, 정책적 세력의 활동에 대한 지식이나 중요도에 따라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의식에 의해 형성되는 정치태도나 신념 즉, 신뢰의 정도는 정치활동의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를 종합하면, 정치의식과 정치신뢰는 정치적 자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정치참여와 정치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Paige(1971)는 정치적 투입과정에 대한 신념인 정치적 신뢰와 산출과정에 대한 의식 즉, 정치의식의 조합을 통해 정치적 성향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9]. 즉, 정치의식이 높고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의식과 정치참여행동의 관계에서 정치신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2.4 정치인식과 소속감 및 정치참여행동

우리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이나 정치의식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의사나 성향 등을 교환한다[20].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선호하는 정치성향이나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확립된다. 이는 정치성향이나 소속감으로 표출되는데, 이러한 정치성향이나 소속감은 자신이 지지하는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21]. 따라서 정치인이나 정치성향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은 소속감도 영향을 받아 정치행동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정치체제와 성향에 대한 소속감이 높은 사람은 같은 성향의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옹호와 지지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소속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졌으며,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방관하기보다는 그것을 처리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22][23]. 이는 정치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치의식을 기반으로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형성되었을 때 정치에 대한 태도와 행동도 적극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 자신들의 이익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시민이익의 실현이라는 행정이념을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인식과 정치참여행동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들의 관계가 어떠한 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때 소속감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가를 파악하고자 연구변인을 선정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올바른 정치문화 정착과 형성을 위해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을 파악하고자 정치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정치신뢰, 사회소속감, 정치참여행동의 요인들을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향후 올바른 정치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토대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다음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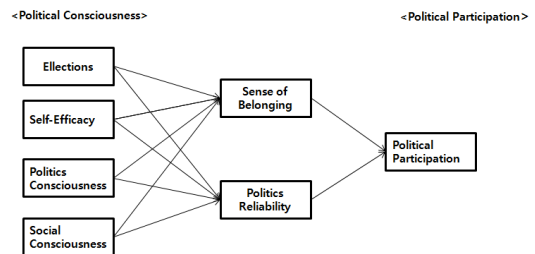


Fig. 1. Study model

3.2 연구가설

3.2.1 정치의식과 정치신뢰 그리고 사회소속감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정치의식에 따른 정치신뢰와 사회소속감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긍정적일수록 정치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정치의식이 긍정적일수록 정치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일수록 정치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정치가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긍정적일수록 사회소속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정치의식이 긍정적일수록 사회소속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일수록 사회소속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정치가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소
속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소
속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정치신뢰와 사회소속감과 정치참여행동

정치적 신뢰감이나 사회소속감은 시민들의 정치에 대
한 만족이 가지는 가치와 신뢰로 선거참여, 지속적인 선
거투표를 유지, 유권자 유출, 우호적인 선거문화 정착 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속성으로 인한 것이다[24].
따라서 이러한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소속감은
정치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시민의 정치신뢰가 높을수록 정치참여행동
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1. 시민의 정치만족도가 높을수록 적극적 정치
참여행동이 높을 것이다.

가설 3-2. 시민의 정치만족도가 낮을수록 소극적 정치
참여행동이 높을 것이다.

가설 3-3. 시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적극
적 정치참여행동이 높을 것이다.

가설 3-4. 시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소극
적 정치참여행동이 높을 것이다.

**가설 4. 시민의 소속감이 긍정적일수록 정치참여행
동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1. 시민의 소속감이 긍정적일수록 적극적 정치
참여행동이 높을 것이다.

가설 4-2. 시민의 소속감이 부정적일수록 소극적 정치
참여행동이 높을 것이다.

3.3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무작위 추출방식을 이용
하여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9월 25일까지 약 45일간 이루어졌다. 배포된
400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설문지는 250부였고, 회수율

은 62.5%였다. 이중 불성실한 50부를 제외한 200부가
유효 설문지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division	frequency	%
sex	male	142	71.0
	female	58	29.0
age	20's	23	11.5
	30's	66	33.0
	40's	72	36.0
	over 50's	39	19.5
	under a million	9	4.5
in- come	over a million - 2millions	62	31.0
	over 2millions - under 3millions	49	24.5
	over 3millions - under 4millions	63	31.5
	over 4millions	17	8.5
edu.	middle school graduated	4	2.0
	high school graduated	68	34.0
	be in university	10	5.0
	university graduated	108	54.0
	over graduate school	10	5.0
	total	200	100.0

3.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실증적 조사를 위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들
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3.4.1 정치의식

본 연구에서 정치의식은 정치적인 태도와 의식, 신념
등을 통합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치의식이란 사람들이
정치행동에 대한 결정을 하는 바탕으로 의견, 판단, 사회의
식, 인식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하고자 한다[25][26].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들의 선거인식, 정치에 대한 자기효능감, 정치가에 대
한 인식수준, 사회에 대한 인식을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Campbell &
Miller, 19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서용석, 2002)
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고
[27][28][29], Likert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4.2 정치신뢰

정치신뢰는 정부나 정치인이 약속한 공약이나 당약
등을 믿음직스럽고 정확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믿는 것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정치신뢰를 분석하기 위해 정치만족
도와 정치평가를 하위영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치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Campbell, 1954;

전대원, 1999)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30][31].

3.4.3 사회소속감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소속감이란 개인이 공동체에 갖는 감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32]. 본 연구에서 사회소속감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33][34]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고, Likert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4.4 정치참여행동

본 연구에서 정치참여행동은 시민이 정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취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35][36]. 설문지는 선행연구(Campbell, 1954; 전대원, 1999)[37][38]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치참여행동과 소극적인 정치참여행동을 하위영역으로 하였고, Likert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Table 2. context of question

factor	question of number	numeral
politic consciousness	elections	I. 1-4 4
	self-efficacy	I. 5-8 4
	politician consciousness	I. 9-13 5
	social consciousness	I. 14-17 4
political reliability	political satisfaction	II. 1-4 4
	politic evaluation	II. 5-9 5
social sense of belonging	region belonging	III. 1-5 6
	passive political participation	IV. 1-3 3
political participation	positive political participation	IV. 4-6 3
	sex, age etc.	V. 1-5 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5 분석방법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20.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와 AMOS 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를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AMOS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통한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설문지를 통한 연구모형 적합도와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경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로분석(Path-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4.1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4.1.1 타당도 분석

본 연구는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념 타당성의 평가 방법 중 하나인 요인분석에 의해 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요인분석 방법에서 요인적재량의 유의성 기준은 일반적으로 요인적재량이 0.3 이상이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고 0.4 이상이면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39].

1) 정치의식

정치의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4개 요인군의 전체 설명변량은 57.30%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요인은 정치가 인식, 2요인은 자기 효능감, 3요인은 사회의식, 4요인은 선거의식이라 명명할 수 있다. 이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olitic consciousness

question of number	factor 1 politician consciousness	factor 2 self- efficacy	factor 3 social consciousness	factor 4 elections
11	.789	.026	-.041	.004
12	.779	-.083	.038	.002
10	.743	.096	-.119	-.052
13	.585	-.182	.348	.075
9	.544	.439	.057	.004
6	-.031	.788	-.014	.159
7	-.135	.727	.204	.036
8	.124	.677	.262	.091
5	.062	.650	-.078	.272
16	-.057	.135	.813	-.060
17	.070	.186	.760	-.038
15	-.084	.125	.642	-.089
14	.349	-.317	.608	.068
2	-.016	.108	.022	.874
1	-.046	.074	.014	.744
3	-.006	.081	-.010	.684
4	.084	.192	-.198	.628
eigenvalues	2.604	2.501	2.320	2.316
explanation variable	15.32	14.71	13.65	13.62
accumulation explanation variable	15.32	30.03	43.68	57.30

2) 정치 신뢰

정치 신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이론적으로 설정한 요인과 상이하게 묶여진 문항(1, 5, 6, 7)을 제거하고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2개 요인군의 전체 설명변량은 67.15%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요인은 정치 만족도, 2요인은 정치평가라 명명할 수 있다. 이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olitical reliability

question of number	factor 1	factor 2
	political sat.	politic evaluation
3	.856	.020
4	.772	.092
2	.743	.154
8	-.001	.944
9	.522	.530
eigenvalues	2.154	1.204
explanation variable	43.08	24.07
accumulation explanation variable	43.08	67.15

3) 정치 참여행동

정치 참여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4개 요인군의 전체 설명변량은 65.94%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요인은 적극적 정치참여, 2요인은 소극적 정치참여라 명명할 수 있다.

Table 5.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olitical participation

question of number	factor 1	factor 2
	positive political participation	passive political participation
5	.827	.165
4	.805	.117
6	.617	.353
1	.066	.899
2	.334	.798
3	.494	.523
eigenvalues	2.073	1.883
explanation variable	34.55	31.39
accumulation explanation variable	34.55	65.94

4.1.2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특정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복수로 설계된 설문항목간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내적일치도를 적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요구

되는 Cronbach Alpha값이 0.60 이상이면 측정 도구의 신뢰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다[40].

Table 6. result of scale's reliability

factor	question of number	Cronbach's		
		initial	final	
politic consciousness	elections	4	4	.736
	self-efficacy	4	4	.750
	politician consciousness	5	5	.737
	social consciousness	4	4	.707
political reliability	political sat.	3	3	.732
	politic evaluation	4	2	.637
social sense of belongin		6	5	.675
political participation	passive political participation	3	3	.745
	positive political participation	3	3	.710

정치의식과 정치신뢰 및 정치참여행동은 앞선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항을 중심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충족되었다. 소속감은 하위 영역이 없어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영역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0.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는 충족되었다.

4.1.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념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별로 항목 구성의 최적상태를 도출하기 위한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초부합치인 χ^2 통계량 ($p>0.05$ 바람직함), GFI (Goodness of Fit Index:0.9 이상 적합), 조정부합치인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0.9 이상 적합), 원소한 평균차이인 RMR(Root Mean Square Residual:0.05 이하 적합), 표준부합지수인 NFI(Normed Fit Index:0.9 이상 적합), CFI(Comparative Fit Index: 0.9 이상 적합)를 이용하였다[41].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Table 7>의 모형 적합도는 $\chi^2=500.078(p<.001)$, GFI=.867, AGFI=.819, RMR=.043, NFI=.779, CFI=.905로 나타나 모형은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model suitability of confirmation factor analysis

$\chi^2(p)$	df	GFI	AGIF	RMR	NFI	CFI
500.078 (p=.000)	322	.856	.819	.043	.779	.905

<Table 8>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정치의식, 정치신뢰, 정치 참여행동의 각 변수들의 표준적재치가 0.5 이상이기 때문에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의식, 정치신뢰, 정치참여의 각 변수별 분산추출지수는 0.5 이상으로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Table 8. result of confirmation factor analysis of politic consciousness

factor	path	path factor	SE	C.R	AVE
elections	No.1 <- elections	0.672	0.491	9.112***	0.532
	No.2 <- elections	0.777	0.498	9.450***	
	No.3 <- elections	0.607	0.293	8.817***	
	No.4 <- elections	0.674	0.369	8.199***	
self- efficacy	No.5 <- self-efficacy	0.748	0.547	8.498***	0.516
	No.6 <- self-efficacy	0.760	0.499	7.671***	
	No.7 <- self-efficacy	0.656	0.476	8.427***	
	No.8 <- self-efficacy	0.753	0.437	8.451***	
politician con.	No.9 <- politician con	0.546	0.474	8.903***	0.523
	No.10 <- politician con	0.640	0.418	8.204***	
	No.11 <- politician con	0.597	0.412	8.570***	
	No.12 <- politician con	0.688	0.368	7.657***	
	No.13 <- politician con	0.754	0.252	6.607***	
social con.	No.14 <- social con.	0.749	0.245	7.634***	0.572
	No.15 <- social con.	0.833	0.192	5.871***	
	No.16 <- social con.	0.354	0.719	9.727***	
political sat.	No. 2 <--- political sat.	0.724	0.419	8.777***	0.713
	No. 3 <--- political sat.	0.945	0.107	9.594***	
politic evaluation	No. 4 <--- political sat.	0.825	0.317	7.140***	0.516
	No. 8 <--- politic evaluation	0.605	0.285	8.430***	
passive political participation	No. 9 <--- politic evaluation	0.684	0.496	9.804***	0.716
	No.1 <- passive political participation	0.770	0.370	8.107***	
	No.2 <- passive political participation	0.885	0.190	8.217***	
positive political participation	No.3 <- passive political participation	0.849	0.270	8.445***	0.592
	No.4 <- positive political participation	0.538	0.277	8.429***	
	No.5 <- positive political participation	0.691	0.278	8.627***	
	No.6 <- positive political participation	0.698	0.310	5.478***	

4.1.4 판별타당성 분석

각 요인들 간의 판별타당성의 결과, 각 변수들의 요인 분석 후 도출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9. analysis of distinction propriety

factor	1	2	3	4	5	6	7	8	9
1. elections	1								
2. self-efficacy	.285**	1							
3. politician consciousness	.025	.084	1						
4. social con.	-.079	.133	.162*	1					
5. political sat.	.623**	.322**	-.099	-.019	1				
6. politic evaluation	.336**	.307**	.084	.132	.390**	1			
7. sense of belonging	.367**	.213**	.160*	.265**	.353**	.419**	1		
8. passive political participation	.427**	.228**	.118	-.053	.425**	.352**	.353**	1	
9. positive political participation	.535**	.125	-.084	-.027	.564**	.423**	.428**	.540**	1

*p<.05, **p<.01

각 요인들 간의 판별타당성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한 후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85보다 적으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2]. 분석 결과 각 변수와의 상관관계에서 .85 이상인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측정 도구의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가설검증

정치의식, 정치 평가, 소속감, 정치참여 행동, 태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AMOS 7.0을 이용하여 구조 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수추정치는 최대가능법(maximum likelihood; ML)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전반적인 부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값을 비롯하여 기초부합지수(GFI), 조정부합지수(AGFI), 원소간평균차이(RMR) 등의 절대부합지수와 표준부합지수(NFI), 비교부합지수(CFI) 등의 중부분합지수를 가지고 분석모형의 부합성을 판단하고 고정지수를 가지고 가설의 부합성 여부를 검증한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최종 연구모형의 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는 <Table 10>에서와 같이 적합지수는 $\chi^2=34.076(p<.001)$, GFI=.965, AGFI=.825, RMR=.016, NFI=.929, CFI=.944로 나타나 분석에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Table 10. final study model suitability

$\chi^2(p)$	df	GFI	AGIF	RMR	NFI	CFI
34.076(p=.000)	9	.965	.825	.016	.929	.944

이를 토대로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치의식이 정치신뢰에 미치는 영향

‘가설 1.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긍정적일수록 정치신뢰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의식이 정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선거 의식(표준화 경로계수=.581, t=1.332, p=.000), 자기 효능감(표준화 경로계수=.163, t=2.886, p=.004), 정치가 인식수준(표준화 경로계수=.131, t=-2.407, p=.016)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선거 의식 수준과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정치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 만족도는 낮아졌다. 이를 통해, 가설 1-1, 1-2, 1-3은 채택되었고 가설 1-4는 기각되었다.

정치의식이 정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선거의식(표준화 경로계수=.286, t=4.237, p=.000), 자기 효능감(표준화 경로계수=.206, t=3.033, p=.002)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선거 의식 수준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다. 따라서 정치의식과 정치신뢰의 관계에서 변인들 간에 부분적으로 채택되어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2) 정치의식이 사회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가설 2인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긍정적일수록 사회소속감에 정(+)²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해 본 결과, 선거의식(표준화 경로계수=.368, t=5.645, p=.000)과 사회에 대한 인식수준(표준화 경로계수=.270, t=4.226, p=.000)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선거 의식 수준과 사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소속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설 2-1과 2-4는 채택되어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3) 정치신뢰가 정치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설 3인 ‘시민의 정치신뢰가 높을수록 정치참여행동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를 검증해 본 결과, 정치 만족도는 적극적 정치 참여(표준화 경로계수=.425, t=6.943, p=.000)와 소극적 정치 참여(표준화 경로계수=.300, t=4.379, p=.000)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정치 평가 역시 적극적 정치 참여(표준화 경로계수=.172, t=2.725, p=.006)와 소극적 정치 참여(표준화 경로계수

=.159, t=2.252, p=.024)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정치 만족도와 정치평가가 높을수록 적극적 정치 참여와 소극적 정치 참여의 참여행동이 높아져 가설 3-1, 3-2, 3-3, 3-4가 모두 채택되어 가설 3은 채택되었다.

4) 사회소속감이 정치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설 4인 ‘시민의 사회소속감이 긍정적일수록 정치참여행동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를 검증해 본 결과, 사회소속감은 적극적 정치 참여(표준화 경로계수=.205, t=3.310, p=.000)와 소극적 정치 참여(표준화 경로계수=.181, t=2.598, p=.009)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시민의 사회소속감이 높을수록 적극적 정치 참여와 소극적 정치 참여의 정치참여 행동 수준이 높아져 가설 4-1, 4-2가 채택되어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1>와 같다.

Table 11. analysis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factor		path factor	stand. of path facto	standa rd error	t value	P	reject/ accept	
	political sat.	<	elections	.656	.581	.063	1.332	.000	accept
	political sat.	<	self-efficacy	.165	.163	.057	2.886	.004	accept
	political sat.	<	politician con.	-.149	-.131	.062	-2.407	.016	accept
Hypot 1	political sat.	<	social con.	.029	.027	.060	.488	.626	reject
	reliability	<	elections	.349	.286	.082	4.237	.000	accept
	reliability	<	self-efficacy	.226	.206	.074	3.033	.002	accept
	reliability	<	politician con.	.05	.041	.081	.622	.534	reject
	reliability	<	social con.	.144	.121	.079	1.83	.067	reject
	sense of belonging	<	elections	.303	.368	.054	5.645	.000	accept
Hypot 2	sense of belonging	<	self-efficacy	.047	.064	.048	.977	.329	reject
	sense of belonging	<	politician con.	.085	.102	.052	1.615	.106	reject
	sense of belonging	<	social con.	.216	.270	.051	4.226	.000	accept
	positive	<	political sat.	.469	.425	.068	6.943	.000	accept
Hypot 3	passive	<	political sat.	.318	.300	.073	4.379	.000	accept
	positive	<	politic evaluation	.175	.172	.064	2.725	.006	accept
	passive	<	politic evaluation	.156	.159	.069	2.252	.024	accept
Hypot 4	positive	<	sense of belonging	.311	.205	.094	3.310	.000	accept
	passive	<	sense of belonging	.263	.181	.101	2.598	.009	accept

5. 결론

5.1 연구결과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올바른 정치문화 정착과 형성을 위해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정치참여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증분석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20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0.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와 AMOS 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인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정치신뢰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선거 의식 수준과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만족도와 정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다. 이는 김한목(2006)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김한목(2006)은 정치의식이 고취되었더라도 정치집단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경우 대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방관자적인 태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43]. 즉, 대학생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정치집권층 내부의 갈등과 사회혼란 등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정치참여행동이 저하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올바르지 못한 정치문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정치효능감이 낮아지고 자기효능감이 저하되어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가설 2인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사회소속감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는 선거 의식 수준과 사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소속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대원(1999)은 민주화에 의한 사회 형태의 변화로 개인의 의식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고 하였다[44]. 이로 인해 사회인으로써 소속감과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려는 의지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에 대한 규제가 강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 유권자들은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써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치에 있어서 강한 자주성을 발휘하고 있고, 정부와 정치가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인식여부에 따라 정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민주체제가 다수 대중의 동의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은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써 갖는 소속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검증할 수

있다.

셋째, 가설 3인 정치신뢰가 정치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정치 만족도와 정치평가가 높을수록 적극적 정치 참여와 소극적 정치 참여의 참여행동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lexander(1988)가 주장한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Alexander는 유권자들은 정치의식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정치적 사상이나 특정한 정치적 문제를 알아보고 이해하며 판단하여 행동하려고 한다고 하였다[45]. 이때 정치에 대한 신뢰여부에 따라 정치참여행동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Parsons(1951)는 정치의식과 태도가 별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하며, 정치의식의 구조에 따라 정치에 대한 평가와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46]. 또한, 정치의식과 태도 또는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계보다는 상호보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제 경쟁시대에서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과 정치인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건전하고 적극적인 정치문화를 구축하고, 권력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설 4인 사회소속감이 정치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시민의 사회소속감이 높을수록 적극적 정치 참여와 소극적 정치 참여의 정치참여 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Mancur(1971)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Mancur는 노동자들이 사적인 이익과 조직의 동기 및 목적에 의해 노조에 가입하고, 정치적인 행동에 동참한다고 지적하였다[47]. 또한,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인식이 강할수록 조직내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고하였다. Scanlon(1999)도 집단행동은 조직의 구조적 유인성, 구조적 긴장, 일반화된 신념, 행동동기 및 조직원으로써의 지각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48]. 따라서 시민들이 인식하는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써의 소속감과 인식 정도에 따라 정치참여행동이나 집단행동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다.

5.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향후 연구방향

지금까지 고찰한 바를 종합하면, 선거 의식 수준과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만족도와 정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다. 또한, 선거 의식 수준과 사회에 대

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소속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전한 선거문화 형성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인식하는 정치의식을 높이고, 정치에 대한 믿음과 사회인으로써의 소속감을 강화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점과 연구진행에서 오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 관계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 관계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정치참여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변인을 점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정치의식, 정치신뢰, 사회소속감, 정치참여행동 등과 관련한 한정된 변인만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관계로 변인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색과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모형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통제변수로 고려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향후에는 양적연구 외에도 질적연구와 인터뷰를 통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Cho, Jin-Man, *A Study of Understanding of Re and by-elections and Plan for Enhancing Voting Rat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p. 14-20, 2005.
- [2] Lee, Jae-II, A study on the voting determinant of voters of Re and by-elections, A master's degree of Korea University, 2007.
- [3] G.A. Almond and J. S. Coleman, *The political of the Developing Area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47-58, 1950.
- [4] Im, Sang-wook, The analysis on the election education concerning the high school textbooks of social and political studies, A master's degree of Hankuk Uni. of foreign Studies, 2005.
- [5] A. Cambell, G. Gerald and W. E. Miller, *The Voter Decides*, Vanston: Row Peterson & Co, pp. 36-87, 1954.
- [6] Lee, Jae-II, A study on the voting determinant of voters of Re and by-elections, A master's degree of Korea University, 2007.
- [7] Im, Sang-wook, The analysis on the election education concerning the high school textbooks of social and political studies, A master's degree of Hankuk Uni. of foreign Studies, 2005.
- [8] Kim, Jae-Young,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Seoul: Hyungseol Publisher Co, pp. 101-124, 1993.
- [9] Kim, Young-Hee, A study on the political consciousness by 12th Graders at a High School in Seoul, A master's degree of Kookmin University, 1996.
- [10] J. V. Cunningham,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PAR*, vol. 32, no. 9, pp. 580-595, 1972. DOI: <https://doi.org/10.2307/975227>
- [11] R.R. Alford, *Bureaucracy and Participation*, pp. 32-48. N.Y.: Rand McNally & co. 1969.
- [12] S.P. Huntington, J. M. Nels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 [13] Im, Sang-wook, The analysis on the election education concerning the high school textbooks of social and political studies, A master's degree of Hankuk Uni. of foreign Studies, 2005.
- [14] Seo, Yong-Seok, An Empirical Study on the Civil Consciousnes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Sogang University, 2002.
- [15] Jung, Han-Wool · Lee, Kwon-Soo,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Trust on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38, pp. 211-244. 2013.
- [16] Gronlund and Setala, "Political Trust, Satisfaction and öä Voter Turnout",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vol. 5, no. 4, pp. 400-422, 2007. DOI: <https://doi.org/10.1057/palgrave.cep.6110113>
- [17] J.V. Cunningham,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PAR*, 32(9), pp. 580-595. 1972. DOI: <https://doi.org/10.2307/975227>
- [18] G.A. Almond and J.S. Coleman, *The political of the Developing Area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0.
- [19] J.M. Paige, "Political Orientation and Rio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 811-813, Oct. 1971. DOI: <https://doi.org/10.2307/2093668>
- [20] J.V. Cunningham,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PAR*, vol. 32, no. 9, pp. 580-595. 1972. DOI: <https://doi.org/10.2307/975227>
- [21] D.W. McMillan, and D.M. George, "Chavisc,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pp. 6-23. 1986. DOI: [https://doi.org/10.1002/1520-6629\(198601\)14:1%3C6::AID-JCOP2290140103%3E3.0.CO;2-I](https://doi.org/10.1002/1520-6629(198601)14:1%3C6::AID-JCOP2290140103%3E3.0.CO;2-I)
- [22] Park, Sun-Hwa, Relationship between Powerlessness and Sense of belonging and Nutritional status among the Elderly, A master's degree of Choongnam University, 2009.
- [23] Baek, Soo-Jung, "The Causality among the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the Ex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nd the Customer Loyalty of Medical

- Service", *Kore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vol. 35, no. 3, pp. 236-344. 2002.
- [24] Lee, Kuk-Chan, *Civil Government*, pp. 87-97. Seoul: Yonsei University, 2004.
- [25] A. Cambell, G. Gerald and W. E. Miller, *The Voter Decides*, Vanston: Row Peterson & Co, pp. 36-87, 1954.
- [26] G.A. Almond and J.S. Coleman, *The political of the Developing Area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0.
- [27] A. Cambell, G. Gerald and W. E. Miller, *The Voter Decides*, Vanston: Row Peterson & Co, pp. 36-87, 1954.
- [28]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search of Re and by-elections, 2009.
- [29] Seo, Yong-Seok, An empirical study on the civil consciousnes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 the case of Ganghwa residents, A doctor's degree of Seokang University, 2002.
- [30] A. Cambell, G. Gerald and W. E. Miller, *The voter decides*, Vanston: Row Peterson & Co, pp. 36-87, 1954.
- [31] Jeon, Dae-won, A study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political awareness, A master's degree of Sungkyunkwan University, 1999.
- [32] McMillan, D.W. and D.M. George, "Chavisc. Sense of communit :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pp. 6-23, 1986.
DOI: [https://doi.org/10.1002/1520-6629\(198601\)14:1<6::AID-JCOP2290140103>3.0.CO;2-I](https://doi.org/10.1002/1520-6629(198601)14:1<6::AID-JCOP2290140103>3.0.CO;2-I)
- [33] Im, Sang-wook, The analysis on the election education concerning the high school textbooks of social and political studies, A master's degree of Hankuk Uni. of foreign Studies, 2005.
- [34] Park, Sun-Hwa, Relationship between Powerlessness and Sense of belonging and Nutritional status among the Elderly, A master's degree of Choongnam University, 2009.
- [35] Huntinton, S. P. and Nelson, J. M.,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Harvard University Press, pp. 87-96, 1976.
DOI: <https://doi.org/10.4159/harvard.9780674863842>
- [36] H.Mcclosky, "Political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7, pp. 252-253, 1968.
- [37] A. Cambell, G. Gerald and W. E. Miller, *The Voter Decides*, Vanston: Row Peterson & Co. pp. 36-87, 1954.
- [38] Jeon, Dae-won, A study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political awareness, A master's degree of Sungkyunkwan University, 1999.
- [39] Hair, J. F., Black, W. C. Babin, B. Anderson, R.E. *Multivariate data analysis*(7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2010.
- [40] Hair, J. F., Black, W. C. Babin, B. Anderson, R.E. *Multivariate data analysis*(7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2010.
- [41] J.C. Nunnally, *Psychometric Theory*, 2nd ed., NY: McGraw-Hill Book Cooperation. 1978.
- [42] R.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8.
- [43] Kim, Han-Mok, Study on the Attitudes to Political Education and Political Consciousness of High School Students, A doctorate of Myung-Ji University, 2006.
- [44] Jeon, Dae-won, A study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political awareness, A master's degree of Sungkyunkwan University, 1999.
- [45] L.B. Alexander, *Professionalization and Unionization: Compatible After All?*, in Karger, Howard, Jacob, *Social Workers and Labor Unions*, Greenwood Press, pp. 157-176, 1988.
- [46] T.Parsons, and E.Shil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51.
DOI: <https://doi.org/10.4159/harvard.9780674863507>
- [47] Olson, Jr.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Seoul: Chunglim Publisher Co. pp. 70-86. 1971.
- [48] Scanlon, Edward, "Labor and the intellectuals : Where is social work?", *Social Work*, vol. 44, no. 6, pp. 590-593. 1999.
DOI: <https://doi.org/10.1093/sw/44.6.590>

이 성 춘(Lee-Sung Choon)

[정회원]



• 2012년 3월 ~ 현재 :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관심분야>

통일/국방정책, 군사교육, 사회과학